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100' 10위 데뷔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
디지털 송 세일스 1위
스트리밍 송 7위에 이름 올려



29일(현지시간) 미국 최고 권위의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가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서 10위로 데뷔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연일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최고 권위의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가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서 10위로 데뷔했다.

'페이크 러브'는 그런지 록 기타 사운드와 트랩 비트가 음산한 이모(emo) 힙합 장르다.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을 담았다. 이별의 감성을 방탄소년단만의 노랫말과 사운드로 담아내 슬프지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페이크 러브'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20일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무대를 공개한 곡이다. 빌보드 내 또 다른 차트인 '디지털 송 세일스' 1위와 '스트리밍 송' 7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개별 곡인 싱글 순위를 매기는 '핫100'은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과 함께 빌보드 차트 양대 봉우리로 통한다.

빌보드는 27일 방탄소년단이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을 공개했다. 30일 공식 업데이트되는 차트를 뉴스를 통해 먼저 알렸다. 같은날 업데이트되는 싱글차트 소식 역시 이날 먼저 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싱글차트에서도 자체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됐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핫100'에서 '러브 유어셀프 송

'허'의 타이틀곡 'DNA'로 67위, 같은해 12월 발표한 '마이크 드롭' 리믹스로 28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페이크 러브' 10위는 국제가수 싸이(41)를 제외한 K팝 그룹 최고 순위다. 특히 '핫100' 톱10 진입은 K팝 최초다. 종전 이 차트 K팝 데뷔 최고 기록은 2013년 싸이의 '젬블맨'의 12위였다.

K팝 가수 중 '핫100'에는 2009년 그룹 '원더걸스'가 '노바디'로 76위에 걸리며

가장 먼저 진입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2012년 '핫100'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페이크 러브'로 이 차트 정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판매량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빌보드 200'은 강력한 팬덤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내 개별 곡에 대한 인기의 척도인 '핫100'은 좀 더 대중적인 인기를 요한다. 모든 장르의 스트리밍, 라디오와

판매 데이터를 혼합해 집계한다. 한국어로 된 '페이크 러브'의 최종 순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앞서 멤버 슈가(25)는 24일 기자회견에서 "빌보드 '핫 100' 1위, '빌보드 200' 1위, 그래미상 무대, 스타디움 투어 등을 통해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뤄지면 좋겠지만,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낸 이상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미시트콤 '로잔 아줌마', 인종차별 논란에 증영

지난 3월 20년 만에 시청자들에게 돌아온 미국 ABC방송의 시트콤 '로잔 아줌마(Roseanne)'가 주연배우의 인종차별 논란으로 결국 증영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채닝 던지 ABC방송 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잔 바의 트위터 서술은 혐오스럽고 대단히 불쾌하며,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그녀의 쇼(로잔 아줌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슬림 형제와 흑성탈출이 아기를 낳았다 = v"라고 남겼다. 바가 언급한 'v'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임고문이었다던 발레리 재럿이다. 바는 트위터 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중앙정보국(CIA)이 프랑스 대선후보자에 대한 첩보 활동을 벌였다는 위키리크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변을 달았다. 재럿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이란에서 태어났다.

바의 이같은 트윗은 곧바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로잔 아줌마'의 공동제작자인 워너 사이크스는 시트콤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제작자이자 공동주연을 맡은 세라 길버트는 "바의 글은 혐오스럽고 우리 제작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믿음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바는 "발레리 재럿이 무슬림 형제와 흑성탈출의 산물이라고 한 글은 허튼 농담이었다"며 "발레리 재럿과 모든 미국인들에게 사과한다. 그녀의 정치와 외교에 대해 심한 농담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ABC방송은 시트콤 제작을 취소했다. 지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약 10년간 방영했던 '로잔 아줌마'는 미 중서부 노동자계급의 백인 중산층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높은 인기를 끌었다. /뉴시스



박수갈채 받고 떠났다... KBS '우리가 만난 기적'

KBS 2TV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극본 백미경·연출 이형민·제작 에이스토리)이 제목처럼 따뜻한 기적을 가득 펼쳐놓고 안방을 떠났다. 시청자는 또 한 번 시청률 1위를 선사하며 배웅했다.

29일 밤 10시대에 방송한 '우리가 만난 기적' 마지막 제18회는 시청률 조사회사 TNMS 집계에서 전국 기준 평균 시청률 11.4%를 기록해 1위를 지켰다.

'송현철'(김명민)의 희생으로 시간이 두 남자의 교통사고 이전으로 되돌아가면서 '송현철A'(김명민)와 '송현철B'(고창석) 집안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으로 파남레를 장식했다.

과거로 돌아온 '송현철A'는 여전히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전과 다르게 온기가 느껴졌다. 스킷이 떠오르는 '기적'과 '송현철B'(고창석)이 자신에게 빙의한 당시 기록으로 남긴 수첩을 본 그는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해 두 집안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켰다.

특히 송현철A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혼 위기까지 치달던 아내 '선혜진'(김현주)과 가족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늑대남'의 면모는 그대로이면서 전과 달리 주변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씨까지 갖게 된 그는 보는 이를 훈훈하게 했다.

송현철B의 가족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28일 17회에서 어이 없는 죽음을 맞은 '조선희'(라미란)가 다시 살게 된 것은 물론이다.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던 송현철A는 몽롱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물처럼 다가온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낀 송현철A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기적 잊지 않겠습니다. 잘 살다가 돌아갈게요"라고 말하는 엔딩 장면은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전하겠다"는 드라마 제작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만난 기적'은 신의 실수로 인한 송현철A와 B의 육체 임대라는 흥미로운 설정을 코미디, 특히 1인2역을 멋지게 소화한 연기 본좌 김명민, 선혜진이 처한 드라마틱한 상황을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소화해낸 김현주 등 배우들의 열연은 발군이었다는 평이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